

# 한국과 일본의 상호문화도시 비교: 한국 안산시와 일본 하마마츠시를 중심으로





# 목 차

1. 상호문화도시 개념 및 발전 배경

2. 구로구와 하마마츠시 사례

3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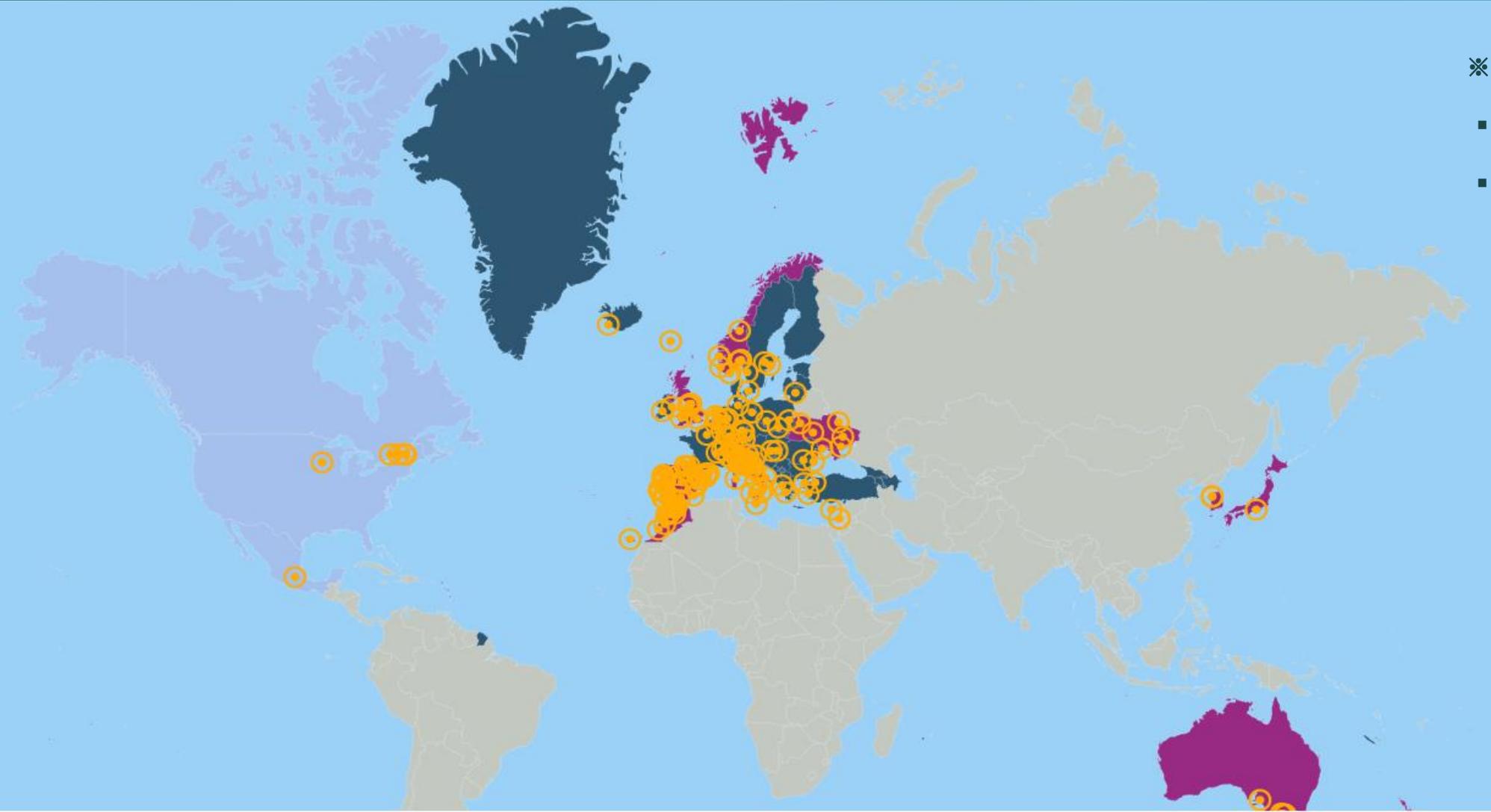
# 1. 상호문화도시 개념 및 발전 배경



2008년 유럽에서 시작된 도시차원 내·외국인주민 상호문화주의 실천 네트워크

유럽평의회(European Council) 주관 프로그램

유럽을 넘어 북미, 대양주, 아시아 등지의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 도시 네트워크



※ 2022년 11월 10일 기준

- 156개 도시 가입
- 9개 세부네트워크 결성
  - 아시아-태평양
  - 퀘벡(캐나다)
  - 이탈리아
  - 모로코
  - 스페인
  - 노르웨이
  - 포르투갈
  - 우크라이나
  - 영국

Member states

National networks

Observer states

## 도시차원

- 이민자 역량을 지역사회 발전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습
- 이주의 시대에 적합한 도시발전 전략수립 노하우 습득
-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지표에 근거하여 도시의 강점과 약점 파악 용이
- 국제사회에 도시 인지도 제고

## 국가차원

- 기존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상호문화정책 확산
- 지역(도시)단위 이민정책 역량 제고
- 이민자에 대한 일반인 편견 및 반이민정서 완화
- 전국 다문화도시협의체 발전 방향 제시 용이

### 국제사회 차원

-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참여 확대 가능
- 국가의 입장을 앞세워야 하는 중앙정부보다 과감하게 실용적 협력 추진 가능
- 다양한 계층(학계, 정계, 재계, 시민단체 등) 참여 용이

국제업무 가중 → **전담인력 필요**

비용 (회원도시 회비, 회의참여 등) 발생

서구사회가 개발한 지표를 적용하면서 동양적 가치 상실 우려  
→ **동양(아시아)사회에 적합한 지표 개발 필요**

## 특성

-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
  - 객관적 지표는 인구구성, 경제여건, 제도적 특징 등 측정
  - 주관적 지표는 시민들의 도시생활 만족도 및 우려도, 집단의식, 사회적 유대 등 측정
-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 측정이 아니라,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상호작용 하도록 유도하는 여건과, 실제 상호작용 빈도 측정

## 객관적 지표

Ex) 문화는 얼마나 상호문화적인가

- a) 하나 이상의 민족적 그룹으로부터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멤버십을 갖는 도시의 스포츠, 예술, 그리고 레저 협회의 비율
- b) 이 협회들 중 명백히 다양한 멤버십을 찾거나 상호문화적 성질의 활동을 운영하는 협회의 비율
- c) 시의회가 협회와 계획들에게 보조금을 할당할 때 상호문화주의를 평가기준으로서 사용하는가
- d) 도시의 문화적 이벤트 중 명백한 상호문화적 목표를 갖는 이벤트의 비율

## 주관적 지표

- Ex) 최근 7일 동안, 주민이 대화(간단히 ‘안녕하세요’ 하는 것보다 더 많이)를 한 사람의 비율
- a) 그들과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
  - b) 그들과 다른 민족적 출신을 갖는 사람
  - c) 그들과 다른 유럽 내 국가에서 온 사람
  - d) 그들과 다른 유럽 외 국가에서 온 사람

## 추진배경

## ● 다문화정책 비판 고조

- ↳ 선주민문화는 “다수문화 = 주류문화 = 우수한 문화”이고,  
이민자문화는 “소수문화 = 비주류문화 = 열등한 문화”라는 분위기 형성
- ↳ 유럽의 실업률 증가와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이민자 복지지원에 대한 반대여론 증가 → **외국인혐오주의자 증가**
- ↳ 이민자 입장에서조차 다문화정책이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불만 확산

## 추진배경

- 상호문화주의 보급

- ↳ 2000년대에 유럽 엘리트들이 개발한 “상호문화주의”의 전파 의도

- ↳ 유럽인의 생활 공간인 도시에서 상호문화주의의 구체적 실천전략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유럽 전역에 확산 유도

## 추진과정

- 유럽평의회(European Council)와 유럽연합(European Union) 협력 하에 프로그램 개발
- 상호문화도시를 건설하려는 시 당국의 의지와 건설 노력에 따라 도시환경이 개선된 정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 상호문화지표 개발
- 프로그램 공고 및 공모 도시별 상호문화성 평가
- 11개 우수 도시를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파일럿 도시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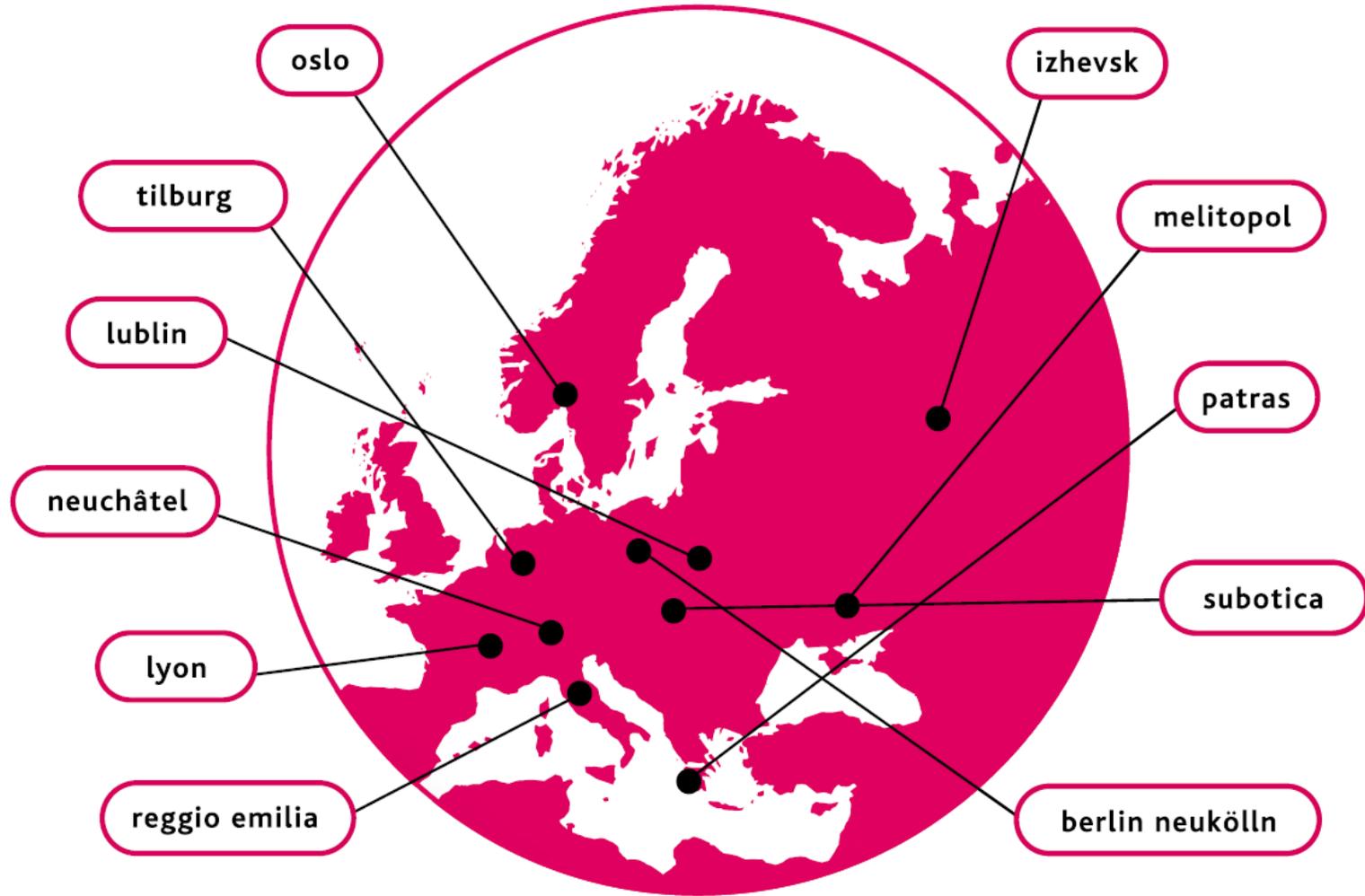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파일럿 도시(2008~2010)

## 참여절차

- 참여희망도시 신청서 접수
- 서류심사
  - ↳ 상호문화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후보도시가 답변하여 서류 제출
  - ↳ 질문지 주요 내용은 상호문화 관련 교육, 이웃관계, 공공서비스, 비즈니스와 노동시장, 중재와 갈등해소, 신규이민자 환영, 리더십과 시민의식 등으로 구성
- 방문실사

## 참여도시 확대

- 2년간 1단계 파일럿 프로그램 성공적 종료 후 참여희망 도시 증가
- 일부 국가에서 국제 네트워크와 별개로 국내 상호문화도시 네트워크 결성  
↳ 이탈리아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우크라이나, 호주, 모로코, 영국, 캐나다 퀘벡주
- 유럽 역외지역 도시들의 프로그램 참여 허용
- 2017년 아시아 도시(일본 浜松) 참여 시작
- 2020년 한국의 안산시, 구로구 가입

## 2. 구로구와 하마마츠시 사례



# 1 아시아지역 도시의 상호문화도시 가입

## 일본

- 하마마츠(Hamamatsu, 2017)
  - 2012년 제2회 아시아-유럽 상호문화도시 심포지움 하마마츠에서 개최
  - 아시아 도시 최초로 상호문화도시 가입
- 고베(Kobe, 진행 중)
  - 현재 가입절차 진행 중

## 대한민국

- 안산(Ansan, 2020)
  - 2020년 2월 가입(137번째)
  
- 구로(Guro, 2020)
  - 2020년 8월 가입(141번째)

Cf. 2020년 구로구 상호문화도시 담당공무원 인터뷰

## 도시개황

-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거주 도시
  - 2021년 12월 기준, 인구 735,412명 가운데 82,686명(11.2%)의 외국인 인구
- 인근 半月工團, 始華工團 등 대규모 공장지대 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이 원곡동 일대에 거주 시작
- 2009년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특구로 지정하고 다문화교육, 음식점, 축제 등을 종합한 관광도시로 육성

### 가입 과정

- 2019년 말 상호문화도시 가입 TF팀 구성
- 2020년 2월 18일 137번째 상호문화도시 가입 → 대한민국 도시 최초

## 발전

- 2020년 8월 상호문화도시 평가 최상위권 기록
  - ↳ 인구 50만명 이상, 외국인주민 10%~15% 도시
  - ↳ 인구 50만명 이상 26개 도시 중 4위, 주민 10%~15% 35개 도시 중 4위

## 관련사업

- 2009년 외국인주민센터 개소 → 2019년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개편
  - 1본부 2과 6팀 24명 근무
  - 외국인주민정책과: 외국인주민정책, 재한동포, 다문화특구 지원
  - 외국인주민지원과: 외국인주민복지, 지구촌문화, 외국인주민교육
- 2012년 다문화학습홍보관 개관 → 2015년 세계문화체험관으로 명칭 변경
- 2014년 안산 다문화커뮤니티센터(현 상호문화커뮤니티센터) 개관

## 도시개발

- 일본 다문화공생 선도 도시
- 약 80만명 인구 가운데 약 25000명(3%)의 외국인 인구 거주
- 혼다, 야마하, 스즈키 등 다국적 기업 소재지
- 공장 근로자 확보를 위해 1980년대부터 외국인력 수용  
→ 주로 일본계 브라질인(니케이진)

## 가입배경

- 2000년대 초부터 외국인주민 정책 수행 필요성 인식
  - 2001년 외국인주민위원회 설치
  - 2001년 공생을 위한 이웃미팅 개설
  - 2002년 브라질출신 니케이진 자녀 교육을 위한 학급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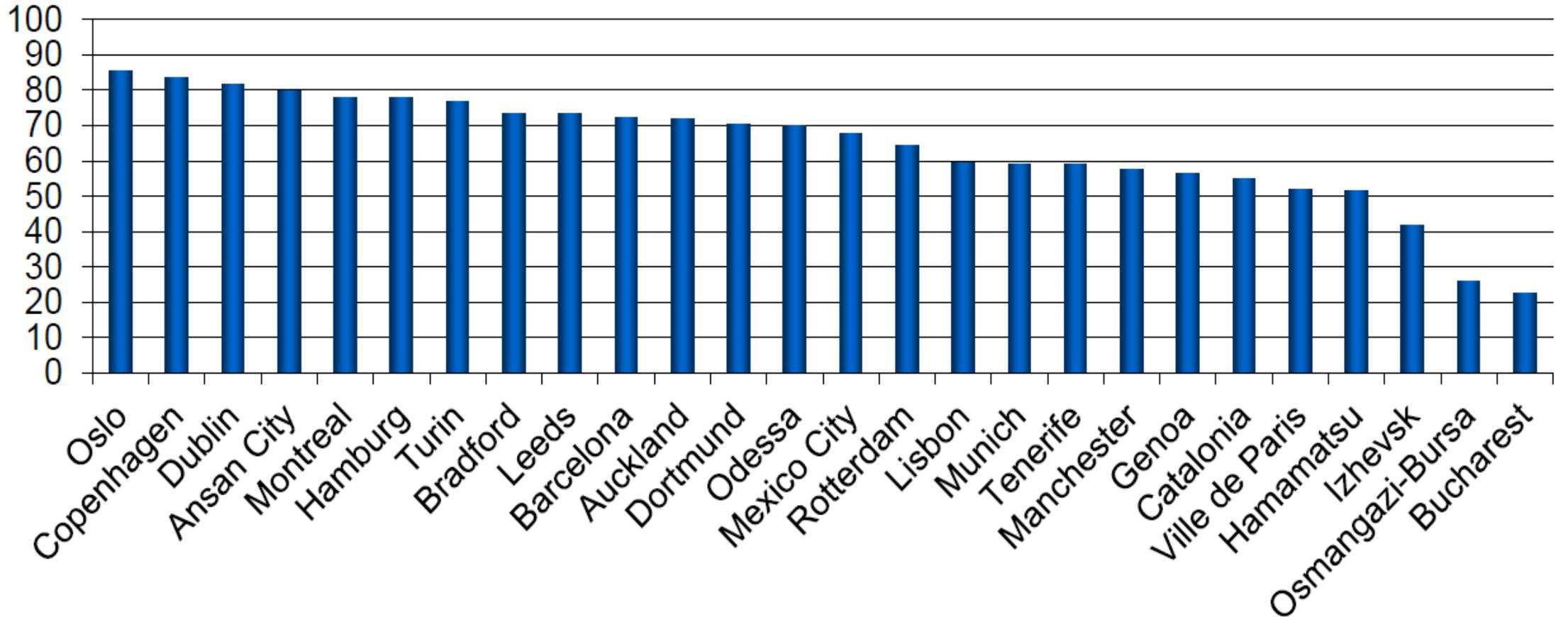
## 가입과정

- 2012년 일본에서 아시아-유럽 상호문화도시 대표회의 개최
- 2013년 하마마츠시 “상호문화도시 비전 작성”
- 2016년 유럽평의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하마마츠 시장에게 유럽평의회에서 상호문화도시 가입 의사 질문→가능성 타진 시작
- 2017년 하마마츠시 상호문화도시 회원도시 가입
- 2018년 하마마츠시 2차 상호문화도시 비전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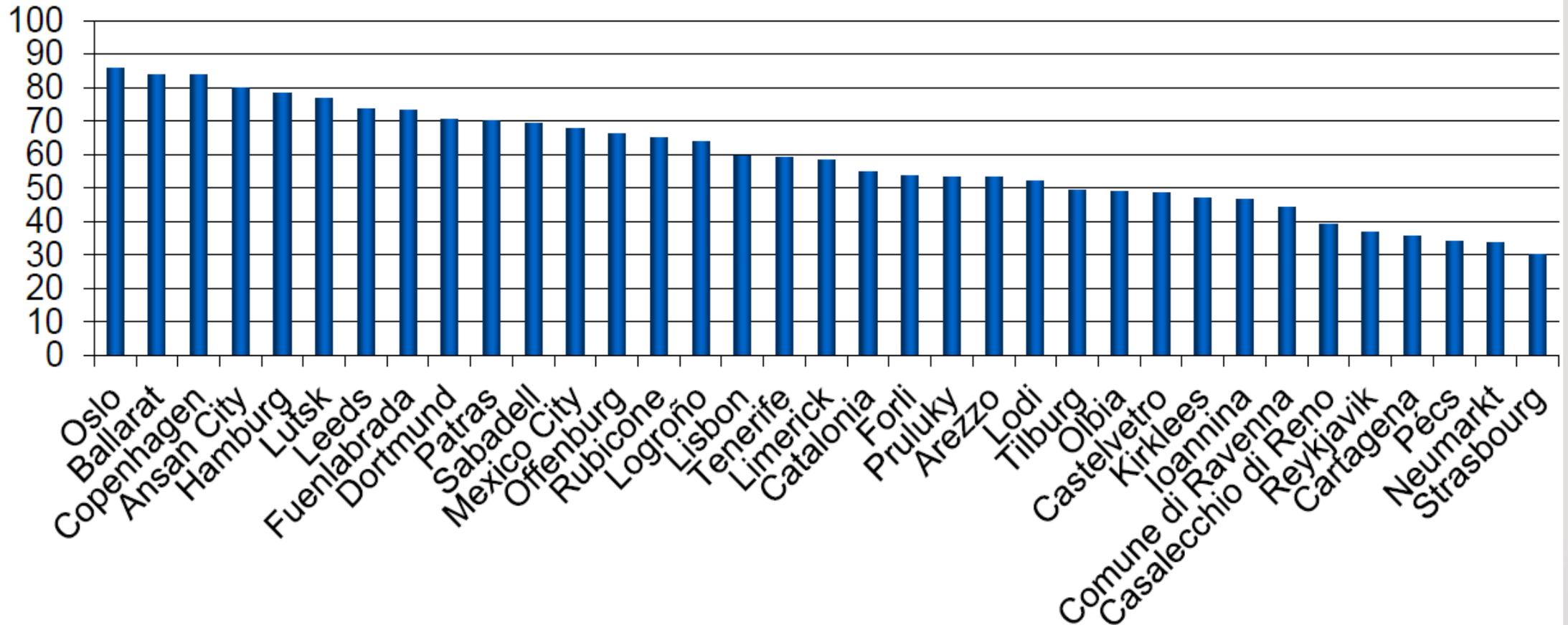
## 관련사업

- 하마마츠 상호문화센터(Hamamatsu Intercultural Center: HICE) 운영
  - 다국어 생활상담, 공동체 공존 모델 프로젝트,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 촉진 프로젝트, 상호 문화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사업 훈련, 정신건강 상담
  - 정신건강 전문가를 고용하여 성인 우울증, 자녀 자폐 등 전문 지원
  - 포르투갈 정부와 협의하여 포르투갈어 전문가 상담 지원
- 하마마츠 외국인주민학습지원센터 운영
  - 외국인주민 일본어 및 일본문화 학습 지원
  - 내국인주민 포르투갈어 수업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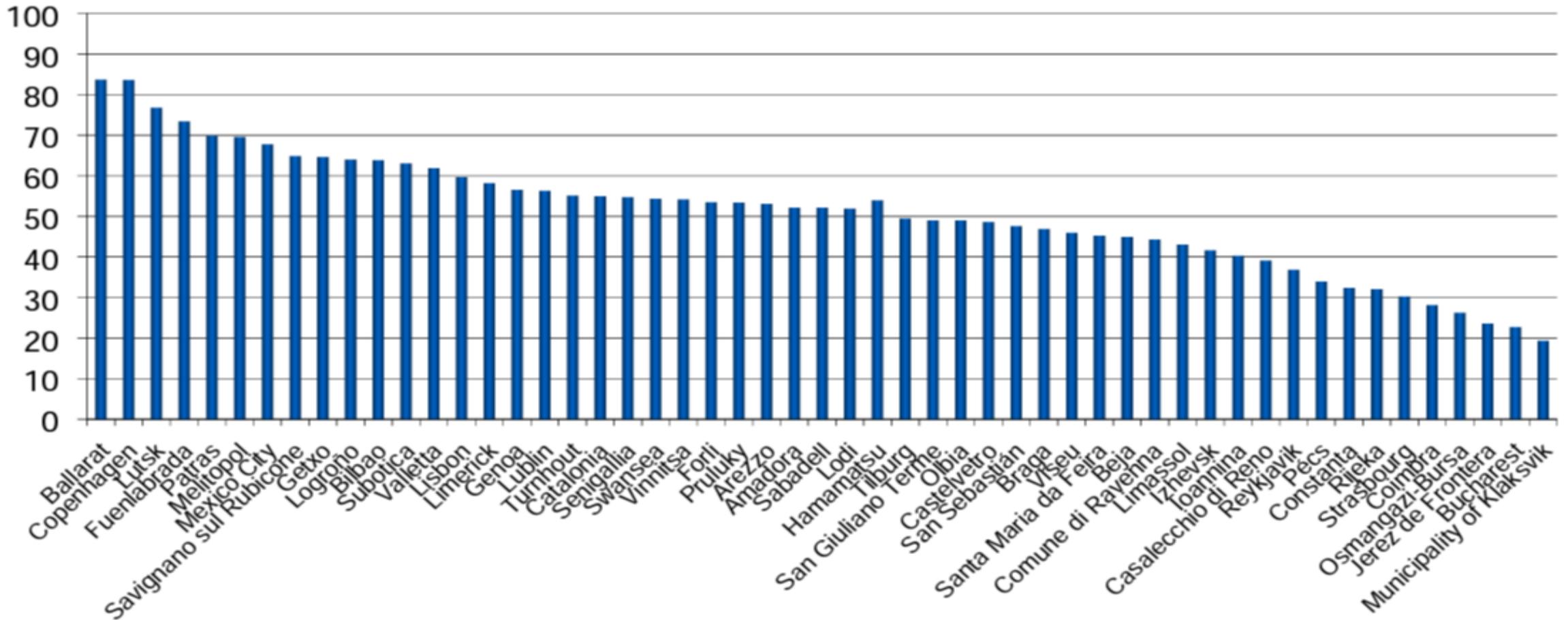
Intercultural City Index (ICC)  
City sample (inhabitants > 500'000)



Intercultural City Index (ICC)  
City sample (non-nationals/foreign borns 10% - 15%)



Intercultural City Index (ICC) - City sample (non-nationals/foreign borns &lt; 15%)



# 3. 결론



## 공통점

- 외국인지원 전담 기관(부서, 센터)을 통한 전문적 외국인정책 추진
- 다문화적 특성을 지역발전 자산으로 활용
- 일본어, 일본문화, 고충상담 중심 외국인지원

## 차이점

- 안산시 예산은 국비+도비+시비 결합인 반면, 하마마츠는 대부분 시비  
∴ 한국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정책 비전과 목표가 지방에 하달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던 반면, 일본 다문화공생정책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전개하며 시작
- 안산시는 관내 외국인 생활편의와 사회통합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반면, 하마마츠시는 국제교류와 국제화 중시  
∴ 한국 다문화정책 한국인의 가족구성원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확장 방식으로 발전한 반면,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화 혹은 인권 측면에서 접근



감사합니다.

